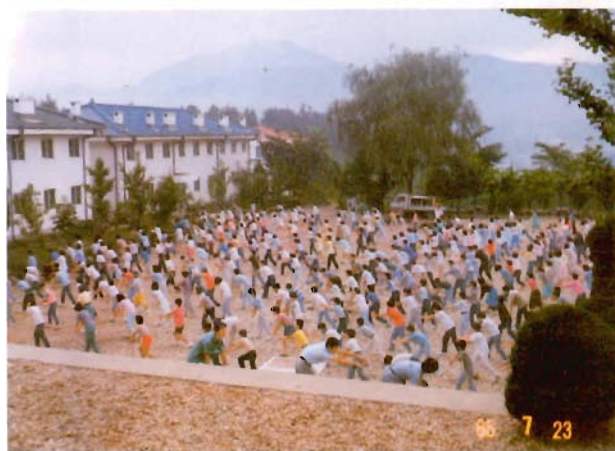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성도교제 및 교육과 훈련의달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7.8 월
1985년

8월에 국방국민이란 말이 생긴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다. 「눈가림」은 거짓과 아첨을 뜻한다.

바리새인들은 ‘내노라’ 하고 나타내 보이는 데는 전공이었으나, 봉사하는 일에는 부전공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남에게 일을 시킬 때에 흔히 “일급으로 맡기면 일이 안돼 못 맡기겠고, 도급으로 맡기면 죽을까 무서워서 못 맡기겠다” 무슨 말인가? 하루에 얼마를 주겠다고 걱정하고 일을 시키면 하루하면 될 일을 이틀 사흘이 걸리니 꾸물꾸물 노는 꼴이 보기 싫어 못 맡기겠고, 일을 이틀 걸려 마시던지, 사흘 걸려 마시던지 일을 다 하는데 얼마 주겠다고 하여 도급을 주면 이삼일 걸릴 것을 한나절에 해치우려고 실 때 쉬지도 않고 점심도 안먹고 덤비니 죽을까 보아 못 맡기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감독을 세운다. 너무 일을 심하게 해서 병에걸릴까 걱정이고 또는 너무 놀려고만 하니 감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성도들의 감독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든지 안보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

성실한 마음이 없으면 눈가림을 하게 된다. 현대어로 날림공사인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날림공사를 하면 안된다.

성실하고 눈가림을 하지 않아야 일을 성취하고 남을 옳은 데로 지도하게 된다. 불란서 사람들이 말발굽의 못 하나까지도 주의깊게 취급하던 때에는 전 유럽을 지배할 수 있었으나, 세계 2차대전 당시의 불란서는 어떠하였는가?

불란서군이 구축한 마지노선(1934년)을 독일군이 돌파하려면 수만명의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각오해야 했다.

그런데, 독일 첩보원들이 마지노선을 정찰하여 본즉 그 공사를 맡았던 청부업자들이 자재를 빼먹고 날림공사를 했고 뇌물을 먹고 준공검사에 합격시켜 준 것을 알아냈었다.

여기에서 자신을 얻은 독일군이 공격을 한지 불과 며칠만에 마지노선을 돌파했고 불란서군은 항복을 했다.

여러분, 불란서 국민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더라면, 성실한 가운데서 건설자재를 빼먹지만 않았더라면 불란서는 분명히 독일군을 물리쳤을 것이다.

그런데, 자리를 도모하여 국방공사에 참여하는 국민이 어찌 패하지 않겠는가? 국방국민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참 보국ियो, 행사에 성실해야 참 애국이다.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월간 충현

1972년 4월30일창간
제13권제 6호
통권제130호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전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7·8월호

차 례

권 두 언.....	국방국민.....	주 간... 2
이달의말씀.....	분수를 지키자.....	김창인 ... 4

기획특집 “계절학교를 통한 여름교육”

①교육위원회의 여름교육훈련개요.....	김장근... 8
②수양회.....	윤태곤... 10
③여름교육훈련.....	김원남... 6
④성도의교제.....	하대선... 12
⑤의의와 방향.....	김익경... 15

특별논단 8·15광복 40주년과 한국교회의 장래

홍치모... 20

충현컬럼.....	여름신앙.....	조영길... 23
장로가정탐방.....	윤종성장로택.....	편집부... 18
충현도서실안내.....		도서실... 17
선교사·선교지 소식.....		세계선교회... 24
이달의 교우동정(새신자, 결혼, 별세).....		편집실... 30
이달의 행사 안내.....		편집실... 34
독자의 편지.....		편집실... 33
교회뉴스.....		편집실... 26
편집후기.....		편집실... 34

□ 표지 사진 설명

85년도 계절학교는 마냥 즐겁기만 하다. 교회 뜰에서 선생님과 같이 성경 공부하고 즐거운 놀이와 게임도 한다. 충현수양관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체조를 하고 유치부 공작 시간에는 잘 흠을 가지고 만들기 애쓴다.



분수를 지키자

김 창 인

(목사·본교회 당회장)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민16:3)

하나님은 사람에게 각기 일을 맡기셨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섬기는 일, 부모는 자식을 키워 축복하는 일, 모든 사람에게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 어디서든지 일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분수를 지켜 책임을 감당하면 남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며 분수를 지키지 아니하면 싸움이 일어나 마침내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직책을 다하며 분수를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에게는 덕을 세워 화목하면서 땅에서부터 성공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수를 지키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가 어떠합니까? 본문을 통하여 좌우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분수를 지키려면 경쟁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서만이 아니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를 원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고라의 일파는 “너는 내 사촌동생으로 40년 동안 남의 집 머슴노릇하던 놈이 무엇이 나보다 낫기에 이스라엘의 왕노릇을 해?” 사촌동생이라고 깔보며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람과 비교하는 경쟁의식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의 경쟁의식을 버려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만 감당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2. 분수를 지키려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봉독해 드린 민수기 16장에만도 모세가 세 번 엎드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는 무슨 일을 만나도 사람과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의논하는 사람은 분수를 넘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의논하는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는 효자가 되고, 스승과 의논하는 제자가 모범 학생이 되고, 남편과 의논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고 분수를 지킵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나, 고라는 백성에게 불평하고 선동하는 일만 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지가 많아 그룹이 튼튼해 보여도 기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3. 분수를 지키려면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백성을 멸망시켜려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내 백성 살려주세요” 울부짖었습니다.

또한 악독하고 교만한 고라당은 이튿날 아침에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하나님’ 온 백성이 우리를 지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모세와 아론을 재하여 주옵소서’ 뽀뽀스럽게 하나님까지 이용

해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하나님은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었드렸습니다. '하나님' 선동한 사람은 몇 안되는데 어리석어서 그들을 따라온 사람들까지 죽이시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들을 용서해 주세요' 모세는 개인의 원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괴롭힌 사람도 저주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손 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악독한 공산당원을 용서해 달라고 법정에 나가 탄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는 개인의 원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생명이 구원을 얻으면 만족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수를 넘는 법이 없고, 자기의 권리와 명예와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분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당이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뻔뻔스럽게 나올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 밑의 군은 땅이 한꺼번에 무너져 불구덩이에 빠져 버렸습니다.

심판의 불이 나타나는 시간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났으니, 가짜는 멸망하고 진짜는 권위가 생겼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는 튼튼해졌습니다. 분수를 지킨 사람의 권위는 올라가고 분수를 지키지 못한 자의 권위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충청교회 식구들이여, 한국 교회의 싸움이 없어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가 잘 했다. 못 했다' 싸울 때에 싸움을 선동하는 자는 탈선한 사람이고, 선동에 따라가는 사람은 불행해질 바보인데 불의한 그룹을 만들어 선동하는 악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절대로 없기를 원하고, 불의한 사람의 선동에 끌려 함부로 원망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려 자신의 책임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분수를 지킵시다.

지나가는 말 한 마디합니다. 가정, 경제 면에서도 분수를 지킵시다. 한달에 수입이 50만원도 안되는데 70만원을 지출하면 그 가정의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이며 나라의 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치품을 경계합니다. 경제의 분수를 넘는 자는 남을 괴롭히고 자기는 도적놈이 되는 날이 옵니다.



자식은 부모님 앞에 분수를 지키고 효도합니다. 백성입니까? 정치하는 분들에게 분수를 지켜 순종합니다. 성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분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고, 자신은 낮고 때문에 죄인임을 알고 핑계없이 회개하고 못 다한 책임을 가슴쳐 울고 오늘부터 힘을 다해 사명에 충성합니다.

선전으로 뻔뻔하지 말고 땀흘려 충성합니다. 이가 나면 충성하고 손해가 나면 돌아서는 반심의 충성은 말고 괴롭거나 힘들거나 일 자체가 좋으니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귀하니까 충성하지는 말입니다.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심판의 권리를 내가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기뻐도 무릎 꿇고 찬송하고 어려워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의 앞길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함부로 하다가 고라당처럼 되는 일은 자손만대에 생기지 않고 나보다 나아지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아지는 사람이 많아져야 우리나라가 잘될 것입니다. 충청교회보다 큰 교회가 많이 생겨야 이 나라가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나아지는 사람을 많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며 기뻐 춤을 출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서 각기 맡은 분수를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의 대접을 받고 영육의 축복을 받아 육신이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다가 세상 이별하는 날 하나님 앞에서 분수를 지켰다고 면류관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교육훈련

김 원 남

(목사·구역관찰회 회장)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은 논할것도 못된다.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교회 생활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기에 사도 신경에도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 하는 것과”라고 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 신조이니, 성도가 서로 교제 하는 일은 안해서는 아니될 꼭 해야하는 생활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인생의 몸으로 비유하였는데 그 비유에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① 성경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 한 몸의 지체 관계도 비유하면서 잘 말해 주고 있다. 우리 인생의 몸의 지체는 서로 교제함이 없이는 몸들이 루어 나갈 수 없다. 서로가 교제함으로 몸은 몸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② 성경은 교회의 성질을 말해주고 있는데 교회의 성질을 생각해 보면 더욱 성도의 교제의 중요함을 알 수 있다.

1. 성도는 한 몸에 지체

만약 몸에 손발이 몸통은 필요없다고 한다면 지 몸통이 손 다리 보고 없어도 된다고 찢어 없

에게 된다면 그 몸은 몸구실을 못하고 죽게된다. 이와같이 성도들은 각각 받은바 은사가 다르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성도는 성경을 많이 알고 어떤 성도는 기도 능하고 어떤 성도는 찬송을 잘 부르고 어떤 성도는 신앙이 불굴의 신앙이고 성도는 모두 받은 은혜가 어떻게 다르다. 따라서 서로 이런성도들이 교제하게 될때 신앙을 유지한다.

만약 한 성도가 슬픈 일을 만난다. 그때 성도들은 그 슬픔을 당한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새롭게 살아나가는데 용기를 북돋아 준다.

어떤 성도가 시험을 만났다. 그때 성도들이 그를 붙잡아준다. 왜 시험이 왔는지 알려 주고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한다.

어떤 성도가 병들었다. 그때 성도들이 합심기도해 준다. 더욱 신유의 은사를 받은자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침받게 된다. 이렇게 성도들이 부족한 점을 서로 돕는 일이 꼭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있어 중요한점은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는 재능을 가지고 서로 주를 위해 공동사용하는 점이다. 그얼마나 귀중하냐. 그리고 또 한 점은 성도들이 복음증거를 위해 합동 한다는 점이다.

이 두 점은 성도들이 참으로 귀중히 여겨야 한다.

2. 교회 성질

교회라고 하면 그 특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특성은 대략 6가지로 쉽게 말할 수 있다.

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내에 신자의 집합체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내에 신자들의 집합체이니 서로 헤어져서는 교회를 이룩해 나갈 수 없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

② 교회는 친교하는 집합체이다. 혹은 교통하는 집합체이다. 교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끼리 서로 교통하는 것이 생명이다. 이 교제가 없는(교통) 교회는 생명일 은 교회이다.

③ 하나님이 자기 권속과 자기를 봉사하게 하기 위해 불러낸 집합체이다.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 뽑아낸 성도요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봉사하라고 뽑아낸 성도다.

④ 교회는 신앙에 입각한 충성과 사랑으로 결합된 집합체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된 성도의 모임이니 서로 사랑의 교제는 꼭 있어야 한다).

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집단이다.

⑥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 불러낸 성도의 집합체이다. 교회의 성도는 그 어떤 성도든지 복음 증거를 서로 힘을 합하여 증거해야 한다.

이러니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생명과 같이 귀하다.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 없을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생명없는 교회가 된다.

3. 여름 교육훈련(여름휴양)시에 성도의 교제

1 년중에 교회에 성도들의 교육훈련은 겨울에는 거의 교회들이 가지지 않는다. 우리 중현교회는 있다. 그런데 사실 1 년중에 교회에 교육훈련(휴양)은 여름은 거의 모든 교회들이 가진다. 특히 성도들의 가족단위(가정교회)에 휴양

을 여름에 갖진다. 겨울에 가족이 휴양을 한다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름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룩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성도의 교제때

① 다른 성도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알고 도움을 받고

② 나의 은사를 타인에게 알려 남을 도와주고

③ 성도들의 서로의 하나님께서 주신 재질을 알아내는 좋은 기회를 삼아야 하겠다. 그 리하여 서로의 재질도 교회에 효과 있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④ 성도의 영적 교제로 서로가 사랑이 두터워져 복음 증거에 협력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4. 성도의 교제에 있어 조심할 점

① 성도의 교제에 불순한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② 성도의 교제에 기회를 자기 사욕을 일삼는 기회로 삼아서도 안된다.

③ 성도의 교제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교회에 부흥, 가정의 영적 성장, 성도에게는 영적인 심령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④ 성도의 교제는 교제하는 개인에 신앙이 향상되어야 하고

⑤ 성도의 교제는 교제하는 개인 교회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⑥ 성도의 교제는 교제하는 개인이 복음 증거에 열심 있는자 되어야 하고

⑦ 성도의 교제는 교제하는 개인이 타성도에게 신령한 유익을 주어야 한다.

⑧ 성도의 교제는 교제하는 개인이 변화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름 휴양을 하는 중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 : 사도 신경 엡 1 : 22-23

여름학교 개요

김 장 근 (목사 · 교육위교육연구소 부소장)



교회 교육의 목적은 그 궁극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땅에 오신 사명과 일치 할 수 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자기가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다. (요10:10). 이런 면에서 교회교육을 생각할 때 교회교육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나고 이제 2 세기에 접어 들게 되었다.

그동안 숫적으로 장족의 발전을 했다. 이 놀라운 발전에는 주일학교 교육의 힘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교회의 성장 추세를 볼 때 나름 대로 교육에 온 힘과 정성을 쏟았던 70년대가 교회성장의 속도가 두드러진 때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열매를 자부 하며 자랑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 교회 교육의 내부를 좀더 자세히 그리고 깊게 살펴 본다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자면 유년, 초등, 소년부는 본 교회 역사와 동일한 32년을 맞이 하면서 그 연륜에 걸 맞는 발전을 해 왔는가? 오랜 기간의 교육을 받은 저희들이 개인 개인의 크리스찬의 성품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저희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생은 실로 귀한 것으로 되어 있는가? 그들이 이웃에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그 태도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는가? 그들의 교회생활은 어떤가? 그리스도를 멀리한 한 몸으로 움직이는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축복은 차 넘치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천국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이를 향하여 매진 하는가? 그들의 젊음과 삶에 그리스도의 새생명의 풍성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실로 이러한 관찰 앞에 심각해 지지 않을 수

가 없는 것이다. 우리 교회 주교 교육으로써 어디가 실족했는지, 어느 부분이 미비한지 찾아 살피고 다시 일어날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85년도 계절학교의 교육의 개요와 지침의 대략을 생각 하고자 한다.

I.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목표 설정은 명확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여름성경학교가 학교 수업과 과제의 무거운 것으로부터 벗어나 쌓인 스트레스나 긴장을 풀어 주는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다. 정확무오한,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양육 하고 말씀을 실제적으로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집체 교육이다.

어느 해인가 이런 웃지 못할 희극을 연출한 때가 있었다. 수양회는 종반으로 접어 들고 있었다. 그런데 내려야 하는 은혜가 내리지 않았다. 초조해진 참모들은 작전 회의를 소집하고 구체적 행동지침을 시달 했다.

날짜는 내일 저녁이고, 찬송은 더욱 구슬픈 것으로 계속 부르고, 모든 담당자는 구슬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예비된 은혜는 (?) 내려졌고, 학생들은 울었고 그리하여 예수님도 울려 버렸다.

계절학교의 모든 계획과 준비와 진행은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덧 입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역사(?)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충족을 위하여 인위적이며, 조작된 연출은 교육으로써는 더욱 곤란하다. 이런 점에서 계절학교는 특별행사이면서도 특별행사는 아니다. 그것은 주일 성경 교육의 연장이며, 기본 교육을 점검하는 유일한 기획일 뿐이다.

주일성경 교육은 장소나 시간이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소외되기 쉽고 돌아 보기 어려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생활교육 즉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의 자세와 공동체로서 이웃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정립해 주고 잘 다듬어 주는 기회인 것이다.

- (2) 수양회가 끝난 후에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가정과 연결될 수 있는 교육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은 급변하는 사회, 다변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급속도로 변해 가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은 모두가 분주하고 한가롭지 못하다. 현대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과거 어느 시대 어린이들보다 무거운 부담을 짊어 지고 자라며 생활 한다.

한 교육 학자는 현대 한국 어린이들은 “연옥에서 신음한다”고 말하였다. 오늘 교회의 모든 교육 대상자들은 치열한 경쟁에 던져져 시간을 쪼개 쓰고 있는 형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황금보다 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나 수양회 교육이 가정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시도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때 계절학교의 프로그램을 계절학교 기간 중에만 실천 가능한 1 회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절학교라는 계기를 통해서 일상생활까지 연장될 수 있는 교육이 연구 개발 되고 반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 (3) 계절학교는 상담의 집으로도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자신의 일을 타인과 더불어 의논 한다는 것이 아직 우리 사회 전통에서는 아직 익숙치 못한 탓인지 각자가 바쁜 탓인지 대부분 심방은 철저히 이행하면 서로 상담에 대해서는 예외 정도로 냉담하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상담에 익숙치 못하여 스스로 지도자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상담실이 상설되어 있다치더라도 상담실을 찾으면 문제와 취급을 당하는 눈총들 때문에 기피현상이 있다.

그렇다고 각자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풍토를 깨뜨리기 쉬우면서, 먼저 저항감이 적은 방법의 하나로 상담교실을 운영하여 반별로 그룹별로 참여하게 하여 가정, 육아, 청소년 문제, 결혼, 학습, 진학, 이성 등등 일반적 내용을 주제로한 교회내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운영하므로서 상담에 익숙케하고 신앙생활의 지도는 상담보다도 더 적절한 방법이 없을 만큼 유용한 것임을 바로 알게 하고 지도 하여야 할 것이다.

II. 준비와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1) 계절학교 준비위원회 구성

계절학교 위원회를 시행 5 개월 전 정도에 구성하고 지도자는 교육 목표를 세분적으로 작성하고 위원회의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연구 검토를 하므로 전체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기획과 준비에 동참하므로 의견이 분분할 수 있고 또한 전체의 의견이 최선의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지도자는 이들과 함께 의논 하고, 계획을 설명하고, 준비시키므로 시행 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능동적인 봉사료 이들의 의욕을 집약시키므로 지시식이나, 독불장군식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예산집행

계절학교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차질을 빚고 교사와 학부모에게 재정 부담을 시키므로 무리를 빚는 일이 간혹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 예산을 생각할 때 1 차적 교육비와 2 차적 교육비로 구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계절학교 예산이 2 차적 교육비에 해당하는 주식, 간식, 시상비이고 보면 계절학교의 효과적인 운영과 열매가 재정만으로 되어 지는 것이 아님도 사실이며 그런 측면에서 볼때 재정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준비, 진행, 평가등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예산의 절감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주어진 예산 가운데서 흡족히 진행 되도록 하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금번 계절학교 실시에 따른 앞으로의 연구 검토 되어야 할 과제와 준비와 실시에 따른 몇가지 사항을 살펴 보았다.

금번 계절학교를 통하여 거는 기대는 사람으로서의 최선을 다할 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덧입혀지는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수고와 흘려지는 땀의 열매로 실천적 천국 일꾼이 양성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계절학교를 통한 여름교육

수 양 회

윤 태 곤

(목사·대학부지도)



여름은 방학의 계절, 휴가의 계절이지만 교회에서는 가장 바쁜 교육의 계절이다. 모든 교회들이 여름의 무더위를 기회로 삼아서 성경학교 수양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쉬는 기간이지만 교회에서는 가장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학교에서 조차 휴서기로 쉬는 이 기간에 교회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인가? 수양회를 통한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여름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정립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다. 이것에 대해 올바르게 교육방향을 정립하지 못한다면 여름교육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름수양회를 단순히 평소 교회교육의 보충으로 보거나 아니면 물이나 산에 가서 쉬는 캠핑 정도로 생각하는 등 극단적인 생각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여름수양회는 평소 교회교육의 연장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중요한 훈련의 의미를 가진다. 여름수양회에서만 시행될 수 있는 교육의 내용이 또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소 교회교육과 수양회만의 유기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상호보완시키며 수행해 나갈때 온전한 교회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1. 여름수양회의 필요성

기독교교육의 핵심은 신앙인격의 훈련에 있다. 지적인 훈련, 정서적 훈련, 의지의 훈련 이 세가지가 고루 균형을 이룰때 하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또한 한 인격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4가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의 강조점은 이러한 인격의 형성과 이 인격과의 4가지 관계를 강화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교회에서 실시되는 일반 주일 학교교육과 수양회를 통한 교육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상호 보완되어져야만 한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일이지만 매주 시행되는 교육만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없는 것이다.그

러기에 수양회를 통한 종합적인 훈련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수양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수양회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은 어떤 것인가?

(1)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

수양회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른 잡념이 없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으며, 또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기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헌신하고 결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지식을 통한 은혜거나 감정을 통한 은혜거나 의지를 통한 은혜를 막론하고 학생들이 가장 깊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수양회 때이다.

(2) 단체생활을 훈련하는 기회가 된다.

교회 교육은 단지 신앙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全人) 교육이어야 한다. 수양회를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의 자기를 발견하며 자기생활을 돌이켜 보고 반성 결단하고, 경건생활을 훈련하며 신체를 단련하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단체생활을 통해서 과잉보호된 나약한 인격이 균형잡힌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3)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되는 기회가 된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인 삶이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영향이 교회에도 침투해 왔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며 무관심하다는 사실은 교회가 당면한 치명적인 위험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유기체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짧은 수양회이지만 공동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알고 서로를 사랑하며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일

인 것이다. 다른 지체와 아무런 관계없이 혼자서만 왔다갔다하는 개개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일은 수양회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4)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희생하는 기회가 된다.

이웃을 위한 희생과 봉사는 교회교육의 결과로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교육은 죽은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을 볼 때, 안타깝게도 지식의 훈련은 어느정도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삶의 실천 훈련은 개개인에게 맡겨버리는 정도에 그치고 마는 것을 본다. 이웃을 위한 희생과 봉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장(場)이 구체적으로 주어져야만 한다. 부족한대로 수양회는 서로 봉사하며 희생할 수 있는 장(場)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이타적(利他的)인 삶을 훈련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5) 집중훈련으로 신앙의 질적향상이 이루어지거나 다음 단계로의 성장의 계기가 된다.

말씀과 생활을 짜임새있게 조직적으로 훈련하므로 말미암아 평소 주일학교 교육프로그램과 잘 연결이 되기만 하면 다음 단계로의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 여름수양회의 문제점

앞에 말한 수양회가 가지는 유익한 효과는 수양회를 실시했다고 해서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교육적인 계획아래서 시행했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수양회가 매년 실시되다보니 연중행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 지도하는 사람이나 학생들이 어떤 교육적인 목표를 가지지 못하고 단지 치루어야 하는 행사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서로 기대하는 목표도 없고 따라서 별다른 결과도 없는 그저그런 수양회가 되거나 아니면 그때에는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으나 얼마 후에는 식어버려 수양회 전이나 별 다름이없는 감정적인 수양회가 되고 만다. 물론 감정적인 수양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수양회가 되어져야만 한다. 수양회가 평소 주일학교 교육 프로그램과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수양회 이전에 가지는 목표

와 수양회 이후에 가지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도록 잘만 운영한다면 수양회는 학생들의 질적성장에 매우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흔히 감정적인 수양회로 끝나버리고마는 경우는 수양회때의 말씀의 내용이 학생들의 삶에 분위기보다 적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수양회때 분위기의 영향이 말씀의 영향력보다 더 커진다면 학생들이 쉽게 실망하고 만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학생들이 받은 만큼의 말씀을 계속 지키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에서 지도를 해준다면 그만큼의 성장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뭏든 수양회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수양회는 평소 교육프로그램과 별도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수양회 전후에 밀접한 체계적인 교육계획과 병행되어 실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3. 수양회를 통한 성공적인 교회교육을 위한 제안

수양회는 평소 주일학교 교육프로그램과 아울러 학생들의 신앙인격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교회와 학부모는 수양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야 한다.

요즈음 부모님들의 학생에 대한 관심을 볼때 신앙인격의 형성보다는 학교 점수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추세로 나가다가는 우리 다음의 세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얼마나 이어나갈지 매우 걱정스럽다. 어려서부터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부모의 관심과 보호아래 그들의 신앙인격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한다면 그다음에는 속수무책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학생 그 앞에는 부모도, 나라도, 법도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훈련보다 공부에 더 치중한 학생들이, 그들에게 대학합격이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같이 보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학생으로 키우는 교육이 시급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학교 이하는 성경학교, 중학교이상 수양회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운영을 아래 학년도 수양회를 통한 인격훈련을 할 수 있도록 재고해 보는 일도 필요한 줄로 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형성은 제한된 공간, 시간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 천국일군을 키우는 교육이 어려서부터 전인격적(全人格的)인 교육이 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며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성도의 교제

하 대 선
(장로 · 건축위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133 : 1~3)

1. 어디로 갈까?

믿는 형제이건 아니건, 직장인에게 있어 일년에 한번 여름철에 얻게 되는 휴가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어서, 소풍을 앞둔 어린이마냥 몇달 전부터 기대에 부풀어 설레이는 가슴을 억제할 수가 없다.

대개는 2박3일이나 3박4일 정도의 인색하기 짝이 없는 짧은 기간이지만, 앞이나 뒤에 주일 또는 공휴일을 어거지로 연결시켜서 하루라도 늘려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휴가일정잡기에서부터 실은 휴가의 즐거움이 시작된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이 휴가일정짜기의 과정이 결코 즐겁기만한 일이 아님을 경험한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집에서 될까, 아니면 교회의 여름 수양회에 참가할까...」. 휴가 기간은 제한돼 있고, 하고 싶은 일이나 가고 싶은 곳은 너무도 많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드디어, 세상유혹과 신앙양심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시작된다... 이제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엡5 : 17) 하신 말씀대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인자하신 말씀으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엡5 : 17) 라고 택할 방향을 명시해 주신다.

그렇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될 성도라면, 일년에 한번 밖에 없는 귀한 휴가이기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값있고 보람되게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여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 : 4) 하신 말씀대로 성도의 믿음은 초전에서부터 승리하여, 휴가일정은 교회의 수양회일정과 은혜로운 일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몸 같이, 환난근심 위
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찬송가 278장)

2. 무엇을 할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
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 2
: 42)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름 수양회에 참가
하게 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은 이미 그
답을 명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
신다.

(1)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성도들의 휴양이 믿지 않는 이들의 그것과 근본
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양
식은 취하되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을 더욱 더
소중히 여긴다는 점이다.

황금 같은 여름 휴가기간에, 성도는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좋아
져야됨은 물론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영혼
을 장려하여 강하게...”(시 138 : 3) 함으로써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
에 잘 대고 강건하기를...”(요 3 : 2) 기할 수만 있
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큰 복을 받게 될 것
이 아닌가.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이란 설명할 필요도 없
이 “하나님의 말씀”(살전 2 : 13)이니, 무엇보다도
그것을 받지 않고서는 영혼이 강건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이 장성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의 휴양에 있어서는 주식이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이것을 강사목
사님을 통해서, 지도교역자님을 통해서, 분반공
부를 통해서, 또는 QT 등 개인적 성경공부를 통
해서, 주야로 먹고 먹고 또 먹는 왕성한 식욕
을 발휘하여, 평소에 바쁜 직장생활 때문에 잘
먹지 못하여, 자칫하면 영양실조에 빠지기 쉬웠
던 영의 양식을 마음껏 포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서로 교제하며

성도들의 휴양에 있어 두번째로 중요시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교제이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귀는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한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
차에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동고동락하는 중 위
로를 나누네...”(찬송가 525장)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마 12 : 50)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성
도들이 천국의 교제 같은 친교를 나누면서 하나
님께 영광 돌리고, 남에게는 털어놓기 어려운
근심·걱정·슬픔·괴로움 등 온갖 마음 속의
무거운 짐을 함께 주님앞에 내어놓고, 서로 위로
하고 권면하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순
수한 사랑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어찌 모른다 하
시겠는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지 않겠느냐”(마 7 : 11)

특히, 우리 총현교회와 같이 성도의 수가 많
아서, 평소에 개별적으로 친교를 나누기가 쉽
지 않은 큰 교회에 있어서는, 여름 수양회 같은
모임을 계기로 서로 인사도 나누고, 서로의 형
편과 처지도 이해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
는 가운데, 참으로 깨끗하고 따뜻하고 즐거운
교제를 나누면서 수양회 기간 동안에 동고동락
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언제까지나 교회생
활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귀고 서로
도우며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는 속에서 신앙
도 장성하게 되는 것이다.

(3) 떡을 떼며

성도의 휴양에 있어서는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도, 물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다 강구해야 한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과 오락, 충분한 휴식, 그리고 풍부한 영양의 섭취가 필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바……성령의 전인……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고전 6 : 19~20) 돌리기 위하여는 성도의 몸은 항상 청결하고 강건하여야 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뽀뽀하게 짜인 휴양기간의 일정을 잘 소화시키면서 활기차게 모든 순서에 참여하여 은혜를 받고자 하는 성도는, 영양보충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하루 세끼의 식사시간은 물론, 가끔 있는 간식시간에도, 영의 양식을 받을 때 보인 식욕 못지 않은 왕성한 식욕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성령의 전”을 튼튼하게 간수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4)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구태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 : 17) 하신 말씀을 빌지 않더라도, 성도의 생활에서 기도를 빼놓을 수 없는 것같이, 성도의 수양회에서 어찌 기도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본문에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라”고 명령하셨으니, 성도는 새벽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잠자리에 든 뒤에도 전적으로 기도하 힘쓰지 않을 수 없다. 하루의 생활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로 끝나는 기도의 생활이어야 된다는 말씀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직장생활을 하는 성도는 평소엔 시간에 쫓기다 보니, 참으로 아무 구애도 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엡 6 : 18) 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벧전 4

: 7)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인데, 일단 여름 수양회에 나가면 예수님이 하신 것 처럼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막 1 : 35, 눅 5 : 16)에서 마음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라” 하신 권면은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다.

3. 뒤에 남는것

모처럼의 휴가를, 믿는 형제들과 더불어 주 안에서 보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확실하고도 큰 차이는, 뒤에 남는 느낌이 어떤것이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화를 한아름 안고 돌아오며, 언제까지나 찬송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결심하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 133 : 3) 하신 바 영생의 복을 거듭 받추하면서,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를 나눈 믿음의 형제들과의 작별이 못내 아쉬워 몇번이나 악수를 교환한 뒤, 집에 이르기까지 축복 받은 스스로의 선택에, 참으로 흐뭇함을 느끼는 동시에, 내년부터는 주저하지 말고 여름 휴가는 꼭 교회에서 베푸는 「하늘 잔치」에 참가할 것을 거듭 거듭 다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후자의 경우에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시간과 돈과 정력을 낭비하고, 남은 것이란 피로, 허탈, 죄책, 그리고 후회막심한 마음의 상처만을 안고 돌아오게 되니, 여기에서 이미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눈으로 보는 것 같지 않은가.

“주 안에 감추인 새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찬송가 493장).

의의와 방향

김 익 경

(강도사 · 고등부지도)



방학을 이용한 집중 교육의 장

계절학교는 흔히 “여름 성경학교” 혹은 겨울 성경학교” 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하여 평소에 여러가지 제약으로 못 다한 주일학교의 교육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 해왔다.

계절학교의 역사는 1 세기를 넘고 있는데 그 시초는 1877년 캐나다의 몬트리올과 퀘벡에서 시작된 여름성경학교였다. 그러나 이름이 성경 학교였지 실제로는 긴 여름방학 동안에 무질서하기 쉬운 어린이들의 생활을 지도해 보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때의 과목은 성경을 비롯하여 체조, 공놀이, 수영등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여름성경학교가 한국에서 처음 실시된 것은 1922년 평북 선천의 어느 여선교사에 의해서였다.

약10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 개월 가량 교육시켰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커서 그 이후로 계속 실시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여름성경학교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일학교 발전에 중요한 몫을 담당해왔다.

우리 총현교회에서는 계절학교를 연초에 겨울성경학교와 무더운 여름에 여름성경학교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겨울성경학교는 우리 총현교회가 1962년 겨울에 최초로 실시하였는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겨울성경학교를 실

시하게되어 그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처음 총현교회가 겨울성경학교를 개교하게 된 것은 당회장 목사님께서 천국일꾼양성이 단지 주일이나 여름성경학교 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생활과 전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애교육”을 강조하심으로 많은 비용과 수고가 따르는 추운 계절이지만 연초에 집중적인 교육과 함께 일년 내내 공백이 없을뿐만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천국일꾼양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상면에서도 과거에는 계절학교의 중심대상이 국민학교 어린이들이나 중고등부 학생에 국한되어 오던것이 이제는 영아부 어린 아 기로부터 소망부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전교인을 포함하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각 전도회와 북한 선교원 등 기타 기관에서도 이 기간을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의 장을 삼아 계절 학교는 명실공히 거교회적인 행사로 발전하게 되었다.

성경교육을 통한 인격 성숙의 장

위에서 계절학교의 유래와 그 현황을 살펴 보았거니와 그러면 계절학교의 목적이무엇인가?

이 문제는 계절학교가 계절풍 처럼 지나가는 연중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

야할 중요한 문제이다.

계절학교의 모든 계획과 진행 및 평가는 분명한 교육목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재미있었고 인상적인 계절학교였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교육 목표와 거리가 멀거나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라면 목표성취는 고사하고 아까운 시간과 경비만 낭비하고 마는 우를 범할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계절학교가 전통적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겨울성경학교로 불리운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계절학교가 이름 그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한국교회의 초창기 여름성경학교를 돌아보면 그 내용의 대부분이 성경공부하는 것으로 채워졌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또한 교육의 방법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내용도 많이 발전해왔다.

그러나 시대와 방법론은 변화된다 하더라도 성경교육을 통한 신앙인격 성숙이라는 교육의 기본적인 명제는 흐려질 수 없다.

그러므로 계절학교는 기독교 교육의 총괄적인 목적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서 학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공동체적 신앙인격으로 자라가고 나아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하는 분명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져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획일적이고 구태의연한 방법을 답습하자는 것은 아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연령과 지식 수준에 따라 그 방법도 다양해야 하고 깊이 연구 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의욕에 치우치거나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킨다는 미명 아래 성경공부와 관련되는 학습 활동은 줄어들고 단순히 흥미 위주의 행사등으로 프로그램이 산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집중적인 훈련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며, 말씀으로 교사와 학생이, 학생과 학생이 인격적으로 만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 섬김을 배우고 아울러 말씀에선 신앙

고백이 모든 생활속에 열매를 맺으며 복음의 증인으로 천국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야 한다.

효과적인 교육의 결실을 바라보며

계절학교 교육의 활성화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선 교회적인 차원에서 계절학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각 기관이 확장되고 교회의 전체적인 사업이 늘어나다보니 계절학교는 많은 행사들 틈에서 별로 중요한 서열을 차지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각 부서가 긴밀한 유대관계속에서 체계적이고 알찬 교육이 되도록 지원하며 재정적인 면에서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나아가서 교육의 효과적인 결실을 위하여 가정과의 연결교육이 되도록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구약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에서 볼 수 있듯이 한 학생의 최초의 성경교사는 부모이다. 부모는 자녀를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만으로 만족하거나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

성도의 각 가정에서는 학교교육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교사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가정과 연결이 되도록 각 가정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계절학교 중에 가정방문을 병행하거나 학부모 초청 수업 및 학부모 초청 좌담회 등을 가질때도 형식적인 행사대신 보다 내용있게 운영되도록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부서라 할지라도 계절학교를 등교하는 방법에서 며칠동안이라도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신앙의 공동체훈련 및 생활훈련을 할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져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연구와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함으로 당장은 전반적인 실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연구 검토하면서 지도자를 훈련하고 부분적으로 도입할 시기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성도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어느 날 믿음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까지 나는 성경을 덮어 놓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만했다. 그러다 이제 성경을 펴고 공부하기 시작하자 믿음이 줄곧 자라나기 시작했다」 유명한 무디선생의 말입니다. 귀하는 무디선생처럼 믿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참된 지식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충현도서실은 성도들의 성경과 신학지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1973년 설립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6 차례의 도서 특강과 독후감 발표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고취시켜 왔으며 처음 900여권으로 출발한 장서는 현재 7,600여권(동서 600여권, 양서 1600여권)에 이르렀으며 열람자 총수도 약 5500여명에 이르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 도서실은 30석의 열람실(6층)과 90석의 독서실(7층)을 갖추고 있으며 열람실은 개가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실은 개인공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앉아 계시는 만큼 신앙은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1. 도서실은 교육관 6층과 7층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2. 도서실은 성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들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각종 주석류, 사전류, 신학서적(성경, 교리, 교회역사, 교회교육, 설교학, 행정학, 상담학, 사목학, 전도학, 선교학, 목회학) 설교집, 신앙위인전집, 경건서적, 신앙서적 기타 각종 잡지류

3. 도서실은 아래와 같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① 도서실 열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일은 9시부터 6시30분까지며 월요일은 휴관이며 중학생이상 본교회성도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② 도서대출: 대학부이상 본교회 교인으로서 도서대출증을 교부받은 분으로 1주일 기한으로 1권씩 대출해 가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도서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성도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 성도는 무한히 성장 합니다. 충현 도서실은 성도들의 독서를 통한 신앙성장을 염원하며 그것을 사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도서실 직원 김영현

윤종성장로님댁을 찾아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꽃대를 세우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함경남도 함흥시 통남리가 고향인 윤종성 장로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했다.

1920년 1월 15일 태어나신 윤장로님은 1928년 12월 28일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54년에 충현교회에 등록했고 57년 서리집사로 임명받았으며, 65년에 장로장립을 받았다.

17년간 충현교회 회계직을 맡아 일했으며, 77년부터 4년간 재정위원장을 역임했고, 81년부터 현재까지 자산관리위원장직을 맡아 교회봉

“4 남매 모두가 국민학교로 부터 대학을 마칠때 까지 어떠한 허물도 없이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웃에 까지 칭찬만 받고 자랐다”고 전제하고 “큰아들 형철목사(37세)님은 8세대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들어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의 교훈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연세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충신대학 신학연구원을 졸업한후 79년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충신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도미하여 83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83년 1년간 미국 L. A 충현교회 시무하고 귀국하여서 서울 할렐루야 교회서 복회활동에 주력하고 있지요. 당회장님과 교회앞에 감사하옵는 것은 신학교로 부터 미국 유학까지 충현교회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해 주심을 감사한다.”고 했다.

또 두째아들 완철집사(30세)는 서울대학을 졸업한후 한국 과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지금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첨단기술에 관한 박사 논문을 쓰고 있고,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평철한 두뇌의 건강한 아들임을 자랑한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생활 — 세상으로 흩어져나가 선교를 —

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녀교육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역점을 둔 윤장로는 “자녀 교육은 무엇보다 어린 유치부부터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도록 뒷바침 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주교 교육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며 형제간에 화목함과 사랑을 알게되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생활하며 학교 교육에 힘을 다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960년도 자녀 성장기에 가혼으로 잠언 13장 20절 말씀과, 9장 10절 말씀에 입각한 “학문을 연마하고 진리를 탐구할수록 지식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겸손, 정의, 경건의 삶과 선한 사업에 힘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것이니라”에 장로님 부부가 82년 기원하면서 자식들에게 가혼으로 잇도록 부탁했다고 한다.

윤장로는 자랑할만한 자녀 4남매를 훌륭히 성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서도, 석, 박사 부부들을 집에 초청하여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고, ‘한국 유학생 선교회’를 조직하여 선교활동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큰딸 경희(33세)는 고등학교 재학중 미국 교환 학생으로 다녀와서 경희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결혼하여 미국 L. A에 살고 있으며, 둘째딸 경숙(27세)이는 한양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충현교회 성가 반주자로 4년간 봉사하다가 출가하여 부산에서 살고 있다.

윤장로는 큰 자부와 작은 자부를 자랑하면서 “완결같이 꾸밈이 없고, 온유한 성품을 지녀 형제간의 화목,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에 애를 쓰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잘 살피며 겸손한 생활로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한다.”고했다.

그뿐 아니라 사위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에 헌신적이며, 봉사적이라고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윤장로가 생각하는 바른교회상은 어떤 것이냐고 물었을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마음과 한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복음안에서 교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 선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며 전하자”라고 정한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이 표어대로 잘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람직한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약 21년간 충현교회서 재정취급을 하면서 대과없이 지내온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

크다는 자만심을 갖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사명이 더욱 크다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에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윤장로는 충현의 후배장로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오늘까지 우리 충현교회 장로님들의 자랑이라면 주님안에서 ‘사랑과 화목’으로 당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각기 맡은 소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후배 장로들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과 화목’의 전통을 더욱 빛내 주시고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해서 당회원으로서의 직무에 더욱 충성하시고 당회장님을 잘 보필하셔서 교회 발전에 힘을 더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였다.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여러 위원들의 협조결과 임을 밝히면서 자산대장 작성할때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술회했다.

윤장로는 충현교회에 특별히 바라고 싶은 말씀을 다음 내용으로 요약했다. “지금까지 충현교회가 32년간 하나님의 은혜중에 부흥발전하여 오면서 교육, 선교, 심방등, 목회 제반 분야에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왔으며 영적지도자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한국 교계와 아세아와 세계교회에 말씀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생활하고 봉사하여 이 말씀만을 전하는 영적지도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당이

윤종성장로의 가족 인터뷰 마지막 질문인 월간충현에 대하여

“편집위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다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상으로 갚아주실것을 믿습니다. 비록 충현지는 불과 40페이지의 얇은 책이지만 내용에는 어느책 못지않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과 영혼의양식 또 신앙생활의 지침이 담겨있는 귀중한 책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충현지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나가는 책으로압니다. 편집위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세계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인만큼 더욱 노력하여서 지구촌에서 모두가 보고싶고 원하는 충현지가 되기를 원하오며 수고하시는 편집위원 여러분들 가정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같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고 강조했다. (대답/손경수 안수집사)

8·15해방 40주년과 한국의 미래

홍 치 모

(충신대학 교수)



1945년 8월 15일 필자는 14세의 홍안소년으로서 중학교 일학년 이었다. 그 날 방학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학교는 방학을 폐지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농장이나 비행장 그리고 병기공장에서 중노동을 시키고 있었다. 우리는 나이 어린 중학교 일년생이었기에 비행장이나 병기공장에는 가지않고 학교의 부속 농장에서 김을 매고있었다.

그때 우리들은 영양실조에 걸려 자주 현기증을 느끼곤 했다. 일본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중국에서 싸우고있던 일본 군인들이 후퇴하여 한반도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여기 저기서 볼수있었고 그중 일부가 우리학교에 까지 들어와서 교실 일부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 부대는 통신중대 였다.

그런데 그 부대도 7월말경 다시 어디론가 이동해 버리고 말았다. 학교 교실은 텅 빈 창고와 같은 느낌을 주었다. 우리 일년생들은 다름없이 그 날도 농장에서 일을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전갈이 왔다.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학교로 돌아오라는 교장의 명령이었다.

그 때 누군가 말하기를 일본 천황의 중대 방송이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벌써 알고있는 사실이 었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자끼 등 두 도시에 미국공군 폭격기가 이상한 폭탄을 투하하여 도시 전체가 타버렸다는 것을 알고있던 나는 아마도 일본이 연합국에 대해서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학교에 도착하니 늙은 일본 교장은 침울한 표정으로 우리들이 돌아오는 것을 물끄럼이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들이 운동장에 정렬하자 곧 라디오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강한 전파를 타고 들려왔다.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웠으나 숨을 죽이고 자세히 들어보니 일본 천황의 울음섞인 목소리 였다.

나는 천황이 연합국에 대해서 항복한다는 내용의 말을 하고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윽고 천황의 방송이 끝나자 3학년 학생중에서 한 학생이 큰 소리로 조선독립 만세 / 라고 외치자 우리는 뒤따라서 일제히 만세를 몇번이고 불렀다.

이 기쁨 이 감격은 그 때 해방을 맞았던 나 뿐 만 아니라 우리 동포들의 마음속에 차서 넘

쳐 흘렀던 것이다. 그 날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말로 애국가를 목이 메이도록 불렀다. 과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였다.

돌이켜 생각해 볼 것 같은 일제의 탄압이 노골적으로 시작한 것은 청일전쟁때 부터였고 노일전쟁이 끝나자 우리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 시작한것은 소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1905년부터였다.

그때부터 횡수를 따질것 같으면 만 40년만에 일제의 침략의 죄사슬에서 풀려난 셈이다. 이것은 마치 옛 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시련을 겪었던 년수와 같은것이다.

그런데 1985년 8월 15일은 해방을 맞이한 지 만 40주년이 되니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되어 내려오고 있는 해방 40년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 해서 제2의 광야생활이 었다고 생각하고 싶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40년 동안의 역사의 흐름을 다시금 되 돌아 보면서 반성의 기회로 삼으면서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역사적 사명과 과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꺼저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 겨레를 사랑하셨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또 다른 시련을 겹쳐서 주셨다.

그것은 南과北을 갈라 놓는 38도 선이다. 우리는 상상치도 못한 일 이었다. 해방과 더불어 겨레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회는 과거 신사참배 사건을 위시하여 8년 동안 가지가지의 죄를 범한 일에 대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한편 정계를 볼 것 같으면 정당과 사회단체의 난립은 정치의 혼란만을 야기시켰고 마치 정권이라도 당장 장악할듯이 정치적 반대 인물과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략, 중상, 테러를 서슴치 않았고 심지어 아까운 인물들을 암살함으로써 우리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들어내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북과 남에서는 공산당의 세력이 날로 강화되어 북은 소련의 힘을 빌어 공산화의 터전을 굳히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남한에서도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미리 계산했던 것과 같이 북한 공산집단은 1950년 6월 25일 불법 남침을 감행하여 하마터면 우리는 국토를 전부 공산당의 무리들에게 빼앗길 번 하였다. 민족의 비극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채찍을 들기는 들었지만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 겨레와 교회에게 회개 할 것 을 촉구하였지만 이 우둔하고 강박한 민족은 마음이 점점 더 강박해지기만 했다. 정권의 연장을 목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드디어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를 감행하다가 4·19 학생의거가 일어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다.

그러나 이 나라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갈광질광 하다가 드디어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이 일어났다. 백성들은 혹시나 군사정권에 기대를 걸어보았다.

군사정권은 이나라에 깊이 뿌리를 박고있는 부정부패와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국민 앞에 장담했지만 부정부패는 근절되지 않았고 경제는 다소 나아졌지만 그것은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빚을 얻어다가 이룩한 발전이 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뜻하지 않았던 서거는 이 나라에 또 다른 시련을 가져다 주었다.

약 20년간 끊임없이 계속되는 학생들의 데모는 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들은 근검 절약 보다는 소비를 미덕으로 알고 사치와 낭비를 일삼았다.

앞날을 대비하지 않은 임기응변식 정책은 어느 부분에서도 나타났다. 이 나라에는 구령이 담을 넘어 오듯이 物質主義, 黃金萬能主義, 世俗的 享樂주의 그리고 利己主義와 不信風潮가 팽배하고 있다. 이와같은 악마적인 이태오로기가 교회안에까지 침투하여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해방 40년을 도리켜 볼 때 이 기간을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가 이룩한 민주사회와 복지사회를 건설한 기간과 비교할 때 물론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역사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 지금 상대적으로 4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할수만은 없다.

曆史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敎訓을 주고 있다는 것을 지각이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인할 것이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싸움에서 아테네는 왜 패배하였으며 로마는 왜 멸망했는가를 생각해 보라. 한마디로 말 해서 한 나라와 사회에 의로운 세력이 감소되는 반면 불의의 세력이 날로 늘어나서 그것이 극도로 팽창 할 때 국가는 망한다는 것을 역사는 말 하고 있지 않은 우리는 그것을 구약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아서 알수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패망했는가 결코 아니다. 불의와 불법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성을 멸망시킨 것이다.

과거 한국교회는 민족의 선구자로서 등불의 역할을 다해왔다. 순수한 복음적 신앙을 간직하면서도 민족의 독립과 안녕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앞장 서서 거래와 더불어 고난에 동참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

교회는 민족의 영적 지도체요 양심의 상징이다. 그러면 오늘 날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다. 지금 교회는 그와같은 영적 능력을 상실해있을 뿐 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 보면서 거래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사의 전체적 위기가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지금이라도 우리들의 호터진 대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지난 40년동안 지어온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책임을 남에게 전과시키지 말고 각자가 자신을 돌

아보고 자신속에 깊이 스며있는 죄의 독소를 뽑아내야 한다. 교회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사회도 그 우둔해졌던 양심에 자극을 받기 마련이고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 양심이 숨쉴수있는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잃어버린 정의와 양심과 질서를 되찾는 운동이 시급하다. 본래 민족은 운명 공동체이지만 그와 못지않게 교회 또한 운명 공동체이다. 지금 교회가 중심이 되어 회개운동 정화운동을 일으킬것 같으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

만약 이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월남과 비슷한 비극을 겪을지도 모른다. 지도자들부터 술선수범하여 겸손하게 부를을 꿇고 회개해야 민중들도 뒤따라 부를을 꿇게 된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본래 정치는 윤리 도덕인데 그 핵심을 모조리 빼버릴것 같으면 남은 것은 불의와 불법 그리고 무서운 권력밖에 없다.

한국의 미래를 참으로 염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치 경제 문화를 염려할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지니고있는 마음의 바탕이 어떻게되어 있는가를 살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찾아 염려 하여야 하며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한국의 장래는 암담할 뿐이다.

우리는 인간의 삶의 근본이 되는 윤리 도덕의 갱신에 앞서 그것을 실천하는데 에네르기를 공급해주는 영적 갱생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는 날 한국의 미래는 자못 밝다고 확신한다.

여름 신앙

조 영 길
(목사 · 3교구담당 교육위원장)



신앙에 무슨 여름신앙이 있고 겨울신앙이 있겠나 마는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계절적인 특색이 있기 마련이다.

무더운 여름에는 구역심방이나 구역예배 드리는것도 좀 쉬었으면……하는것이 일선 구역 권찰님들의 바램이기도하다.

그것도 그럴것이 7~8월에는 너무나 고열의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한창 더운 삼복에는 34~35도를 오르내리는, 수은주 마저 더워 먹을 지경이니 움직이기가 고역이다. 가만 있어도 등골에서 땀이 흐르고 괜히 기분이 좋질 못하다.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셔야만하고 그것의 대부분이 땀으로 흐르게 된다.

땀 1리터를 흘리는데 600칼로리의 열량을 빼앗아 간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연히 짜증이 나고 기운이 쭉 빠지며 일에는 의욕이 나지않아 능률이 오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인지 학교에서는 방학을하고 직장에서는 휴가를 주는가 보다. 그뿐 아니라 7~8월에는 년간 강수량 (1,140억톤)의 60%센트 이상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만다. 장마와 집중호우로 지루하기도 하려니와 많은 인명과 농경지 유실과 재산에 해를 입는 계절이기도하다.

하루에 300미리나 집중호우로 쏟아진 일도 있었거니와 하루에 100미리만 내려도 하천이 범람하고 저지대에는 50미리만 내려도 침수현상이 일어난다.

금년에도 집중 호우로 많은 인명을 잃고 가옥의 붕괴와 농경지의 유실이 있었다. 이같은 한, 수재가 있음에 불구하고 여름에는 뭐니 뭐니 해도 성장의 계절이다.

7~8월에 한결 자라나야 가을에 충실한 열매를 거둘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 여름에 자라나지 못하면 가을의 풍년을 기대할수가 없을

것이다. 초목과 농부는 여름에는 더웁고 비가 오기를 기다린단다.

이와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구원 받은 성도들도 이같은 계절의 특성을 살려 신앙생활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는 뭐니 해도 잘 먹어야만 한다.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더위를 이겨낼수가 있는 것이다.

의사들은 더위를 이길만한 우리 몸의 스태미너를 위해서는 몸 무게의 1kg당 최저 1.5g의 열량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잘 먹어야만한다. 잘 먹지 못하면 대신 더위를 먹고 그만 건강을 잃게된다.

또한 땀을 많이 흘리는 대신에 차고 신선한 물을 많이 마셔야만한다.

7~8월 무더위가 올때면 우리 교회는 더욱 바빠진다. 각종 여름, 성경학교다. 여름 수양회다. 여름 특별 훈련 집회다. 산상 부흥회다 하고 집중적으로 은혜 받는 계절로 선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의 영양있는 말씀으로 배를 채우고 선량한 음료인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므로 우리의 신앙 인격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성장했으면 한다.

휴가(休暇)란 말은 회랍말로 「스코레」라고 한다 그뜻은 정확히 “보람있는 생활”이란 뜻이다.

이와같이 금년 여름에는 휴가의 신앙이 되지 말고 보람있는 생활 스코레의 신앙이 되었으면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의 단백질로 풍성히 섭취하여 배부름을 받고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의 갈한 목과 배를 넘치도록 채우고 믿음에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는 “여름신앙”의 계절이 되었으면 하고 기도한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 2/4분기 동안 102명의 장년과 16명의 어린이가 결신하고 41명에게 세례 베푸는 소식과 함께 5월6일부터 6월21일까지 45일간 선교 여행 보고하며 감사와 문안의 소식 전해음.
- 말루쿠 기독교 대학 설립하고 오는 9월 도복공학과 70명 정원으로 개강하게됨.
- 오지개척 선교교회가 새로운 후원자를 42개로 증가됨.
- 기독교 대학 설립, 2명의 선교사 파송, 신학교 운영등 서부 이리안 선교 사업이 잘 추진되어지며 46개처의 오지개척 사역의 부흥 발전과 많은 후원자들이 나타나도록

서독(육호기 선교사)

- 비스바덴 교회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 권사 1명을 피택 5월27일(월) 이해주 집사의 권사 취임식을 거행.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2시간 동안 뷔츠브룩 교회에서 미국 및 독일인 남편 한글 운영 및 부인 성경공부를 실시. 하나우 교회는 5월 20일(월) 오후 7시에 성경 공부를 가짐.
- 세 한인교회의 성령 충만함과 현지인 및 유럽 복음화의 큰 사역 감당을 위해.

애굽(이준교 선교사)

- 카이로 한인교회, 포트사이드 가정교회 및 대림 산업 현장에배 은혜중 인도.
- 타운스 개척교회를 방문, 교회현황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
- 자라이트 넘마주의들을 위한 의류 90점을 전달. 진료 사업 추진에 관해 협의.
- 선교사역을 위해 도와 주시는 후원자들을 위한 감사와 문안의 소식.

파라과이(김재창 선교사)

- 6월1일 북한선교를 위한 조찬기도회 모임.
- 6월10일 합동 기도회 협의와 후안 웨르난도 원주민 교역자 총회장 내한 답화

- 6월12일 파라과이 평화를 위한 합동 기도회에 참석, 기도와 찬양을 드림.
- 재파 윤충모 교육 원장께서 유치원 교재 구입용으로 \$100을 보조.
- 원주민 선교 사업의 성공 및 교회 증축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칠레(유재일 선교사)

- 한인교회 사찰 및 운전업무와 산티아고 중앙교회 반주자로 수고하는 Jose esteban vaquez 군을 선교부에 소속 신학 교육을 보조키로 결정.
- 건축중인 교회의 입당할 새성전 내장 공사가 거의 완성되어 가는중 예배 의자 및 건축비를 위해 특별 기도를 부탁.

벨기에(김성완 선교사)

- 6월1일 선원 선교교회에서 ‘아더호’ ‘팬티가더호’의 선원들과 함께 은혜중 예배 드리고 주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음.
- 6월2일 브랏셀 한인 선교교회에서 공동의 회를 개최. 박주석 집사를 피택 장로로 선출함.
- 6월9일 구라파 한인 선교교회, 선원선교교회, 브랏셀 한인 선교교회의 연합 야외 예배를 드려 아름답고 훈훈한 시간을 보내고 전도의 열매도 맺게됨.
- 성경공부 및 구역이 성장되고 3교회가 사랑스럽게 부흥되고 있음. 감사

이스라엘(김주경 선교사)

- 예루살렘 한인교회 목회 및 히브리 대학원에서 학업중
- 성지방문, 답사,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현지 아랍인 선교 및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협력 증진.
- 성지 연구소 법인체 설립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인도(엘리아 젤간 선교사)

- 본부와 뉴욕 빌립보 한인교회로 부터 소식과 함께 선교비와 선물등 받고 감사.
- 전도와 목회활동, 성경 번역 및 관련사역, 지역사회 개발사업(여자용 솔 직조 수공장, 도서관, 농장실험, 진료사업, 마을 개발사업등)
- 동역자 달릴싱씨 및 두명의 간사(교인이 아님) 외에 간호원, 농부등 기독교 자원 지도자들과 선교 협력 사역.

- 새로 시작된 발가직 및 물백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
- 의료 센터를 위한 선교비 \$ 2700 해결을 위해

일본 (유병세 선교사)

- 선교사역을 시작하고, 히로오 교회 설립한 후 최초로 결신자 가운데서 가미 야마씨와 이도오양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게되어 축복 기도를 담당, 감격의 순간을 맞보신 소식을 전함.
- 이윤호 권사 부인 성경반 은혜 가운데 계속중이며, 외래환자, 입원환자 특히 중환자 전도 교포가정 전도.
- 의료진료 활동 책임감당 및 일본인 선교를 위해

라성총현교회 (정상우 목사)

- 부인 성경반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라성총현교회(정상우 목사)
- 특별히 정상우 목사의 건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부흥 발전하고 있는 교회의 안정을 위해
- 세계복음화를 위한 해외 본부의 역할 담당 및 선교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털사총현교회 (강성진 목사)

- 미국교회와 협동, 개교하고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6월17일부터 21일까지 72명(한국학생 10명)이 등록하여 39명의 교사와 함께 “기도하는 어린이”의 주제를 가지고 많은 선교 효과를 얻음.
- 교육 기간이 끝나는 금요일에는 한국 음식을 준비하여 교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임.
- 현재의 출석 교인수는 40여명, 주일 학생은 10여명이 참석.
- 선교활동에 도움이 되고 미국교회에 소개할 수 있는 한국의 여제와 오늘에 이른 슬라이드(영어 해설이 첨부된 것)와 당회장 비디오 설교 테이프를 청원.
- 고국의 교계소식에 도움이 될수있는 ‘기독신보’ 발송 요청.
- 지역 경제 사정으로 교회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 성전 건축 대지의 추가 매입과 건축을 위해

뉴욕총현교회 (박종만 목사)

- 6월중 주일 대 예배 집회 교인수는 주일학교를 포함하여 평균 90여명이 참석 예배드릴.

- 서만수 선교사께서 6월5일 내방 6월9일 뉴욕 총현교회 낮 예배와 빌립보 교회의 저녁 예배 설교.
- 6월30일 교회 여전도회 및 청년회를 조직.

홍콩총현교회 (오치용 목사)

- 6월30일(주일)에 공동의회를 개최, 하반기 예산과 사업을 의논하고 결정.
- 7월18일부터 20일까지 여름 성경학교,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기 선교훈련(가족 수양회 겸), 가을에는 선교 부흥집회를 예정하며 기도 부탁.
- 홍콩총현교회가 주안에서 성장, 부흥 발전하도록.

본부소식

- 6월22일 박예원 전도사 인도로 대구서문교회 선교회 임원 16명 선교회를 방문하여 총현 세계선교 연역 개요 및 강의,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갖임.
- 6월23일 칠레 교민회 회장이며 칠레 한인 연합교회 개척에 수고한 유명렬 집사께서 본부를 방문, 인사 나누고 6월28일 출국시 선교비 전달 및 선교 자료를 발송.
- 6월30일 '85년도 전반기 선교 사진 전시회를 개최.
- 4부 예배후 본당 103호실에서 선교 월례 기도회를 가지고 선교지 보고 및 합심 기도후 선교국별로 나누어 기도회를 가짐.
- 6월30일 인도네시아 서 아리안자야 지역을 포함한 발주꾸 개혁 교단 총회장 라자와네 박사께서 본부 방문, 총재 김창인 목사, 최석주 장로, 선교 회장 한경일 장로와 인사 및 선교 업무에 대해 협의.
- 7월4일 홍콩 총현교회 설립과 안정에 힘써 주신 여종만 전 홍콩 영사택을 회장 한경일 장로, 유국남 목사, 김성주 목사께서 심방, 현지소식 및 저녁식사를 나눔.
- 7월9일 총회 선교국 및 선교 훈련원에서 개최한 선교 실무자 세미나에 교역자께서 참석, 총회 선교현황 및 정책, 총회와 선교 협력하는 수단 내륙 선교회(SIM)의 선교 현황 및 정책에 관하여 듣고 훈련 받고 있는 국내 선교사 후보자들 및 외래강사들과 인사 나눔.
- 김영희 목사께서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선교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부를 위해 풀러 신학교 신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목회와 병행 하느라고 학업에 어려움이 많아 특별 기도를 부탁.

교회소식

부/오전9시 ④초등부/오전9시, ⑤소년부/오전9시 ⑥중등부/오전9시(2부예배참석) 10시20분 분반공부, ⑦고등부/오전9시(2부예배참석) 10시20분 분반공부, ⑧대학부/12시30분~14시50분 조별공부, 15시~16시10분(5부예배참석) ⑨청년부 12시30분~14시50분 조별공부, 15시~16시10분(5부예배참석) ⑩중년부/11시50분~13시30분 성경공부및 프로그램, ⑪장년부 11시50분~13시30분 성경공부및 프로그램 ⑫소망부 11시50분~13시30분 성경공부 및 프로그램, ⑬직장부/오전9시~11시 집회및 성경공부, ⑭새가정부/11시50분~13시30분 집회및 성경공부, ⑮새신자부/11시50분~13시30분 집회및 성경공부, ⑯세레부/11시50분~13시30분 집회및 성경공부.

9월 첫주부터 5부예배 실시

- 1부 오전 7시,
- 2부 오전 9시,
- 3부 오전 10시 30분,
- 4부 12시,
- 5부 오후 3시

당회는 9월 첫주일부터 주일낮예배를 5부로 실시키로 결정했다.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및 기획조정실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5부예배 시간별 조정은 다음과 같다.

- 1부 오전 7시~8시10분
- 2부 오전 9시~10시10분
- 3부 오전 10시30분~11시40분
- 4부 정오 12시~1시10분
- 5부 오후 3시~4시10분

이에따라 중·고등부 학생들은 전원 2부예배에 참석토록 하고, 5부 예배엔 대학·청년부 회원들이 전부 참석하도록 했다.

한편 5부 예배가 실시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산하 16부 주일학교의 집회시간이 재조정되었다.

- ①영아부/1부 9시, 2부 10시, 3부 11시
- ②유치부/오전 9시, ③유년

모범구역·구역원 표창

구역전찰회는 7월과 8월 모범구역과 모범구역원을 표창했다.

△7월 모범구역=충현6구역(구역장:박효지 집사) 홍익1구역(구역장:이기곤 집사) 홍익3구역(구역장:이만기 집사) △7월 모범구역원=이춘미권사(1교구 전달래 구역) 박영엽집사(6교구 정릉 1~2구역), 장일숙권사(7교구 중화구역), 이옥기집사(8교구 암사 4구역) △8월 모범구역=논현12구역(구역장:이희원 권사) △8월 모범구역원=권영재 집사(논현12구역), 이인자 권사(창신 2구역) 박순봉권사(신사 1-6 구역)

여름계절학교 모두 끝나 12부 주교서 3,241명 참석

교육위원회 산하 12부 주일학교가 85년도 계절학교(여름)를 지난 7월8일부터 8월17일까지 모두 끝냈다.

이번 계절학교엔 교사 465명 학생 2,776명 등 3,241명이 참석했으며 약88.9%의 참석률로 분석되었다.

인원 동원에서 대학부가 76명으로 가장 적게 참석했고, 유치부가 490명으로 가장 많이 참석했다.

각 주일학교별 계절학교 실시결과를 다음 도표와 같다.



▲모여앉아 성경공부

1985년 계절학교(여름) 실시결과 개요보고서

교육위원회

1985. 8.

구분 부별	행 사 명	주 제	주 성 제 구	주 찬 새 송	실시기간	실시장소	강 사	참 가 인 원(명)			
								교 사	학 생	계	%
1. 영아부	제21회 여름성경학교	사랑은 나쁜생각 하지 아니 하며	눅 9 : 46	새로사망라	85 8.14-15	선 102호 선 103호	김 정 인 정 소 영	38	(227) 320	358	
2. 유치부	제32회 여름성경학교	성경과 가정생활	잠17 : 1	우리가정	7.22-24	본당 101호 교 107호 교 205호	김 정 근 정 연 희	76	(100) 414	490	116.7
3. 유년부	제32회 여름성경학교	배우고 마를 성 경 말씀	딤후 3 : 16		7.22-24	교 212호	한 영 철 김 연 이	54	285	339	80.7
4. 초등부	제32회 여름성경학교	성경과교회생활	딤후 3 : 15	246	7.22-24	교 314호	김 성 윤	55	337	392	91.2
5. 소년부	제32회 여름성경학교	하나님의 나라	눅18 : 17	246	7.22-24	교 307호	남 창 우	59	306	359	81.6
6. 중등부	제23회 여름수양회	주의 사람 깨달 아민을으로해라	요13 : 34-35	409	7.22-25	충원기도원	김 이 경 정 지 희	47	317	364	84.7
7. 고등부	제23회 여름수양회	대 안에 거하라	요15 : 4-5	218	7.29-8.1	충원기도원	정 지 희 김 의 학	37	208	245	88.4
8. 대학부	제16회 여름수양회	자다가 댈 때가 뵈었으니	골13 : 11	163	7.8-11	충원기도원	을 태 곤	7	69	76	58.5
9. 청년부	제15회 여름수양회	바른 믿음	약 2 : 22	344	7.16-19	충원기도원	조 영 집 전 동 영	8	126	128	85.3
10. 중년부	제2회 여름수양회	나의 기쁨이 실 로 아람달다	시16 : 6	492	7.16-17	선 302호 선 303호	김 영 구 이 성 근	10 21	27 102	123	99.2
11. 소양부	제10회 여름수양회	대세를수양하자	고전 9 : 16	196	8.16-17	교 107호	한 영 철	35	215	250	87.7
12. 직장부	제9회 여름수양회	새 사람을 일으켜라	엡 4 : 24	189	8.1-3	충원기도원	한 영 철 김 오 용	28	89	117	78.0
계								10 465	(354) 2,776	(364) 3,241	88.9

수도주교 성경퀴즈 본 교회서 최고상

수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가 주최한 제8회 성경퀴즈대회에서 초등부의 손에스터, 김은혜 어린이가 최고상을, 소년부 양현주, 신혜원 어린이가 은상을 각각 차지했다.

에스터 여전도회 여름수련회 성황

에스터 여전도회 연합회(회장 박영엽집사)는 지난 7월 9~11일까지 본 교회당에서 여전도회 수련회를 개최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란 주제로 열린 동 수련회에서는 ①

정보시대의 여성의 위치, ②그리스도인의 대화법에 대하여 이진숙교수(신성종박사 부인)의 강의가 있었다.

수련회 기간중 찬송가 경연대회도 열어 성도간의 코이노니아도 가졌는데, 우승팀은 8지회(회장 강동화집사) 차지했다.

의료전도단

무의촌 진료봉사

전도위원회 산하 의료전도단 (단장 조인제장로) 은 지난 7월 14일, 21일, 28일 3차에 걸쳐 경기도 재현교회, 강원도 신현교회, 강원도 부현교회당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적인 봉사정신으로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료전도단은 진료와 복음사역에 최선을 다했다.

3차에 걸친 의료진료에 연인원 57명의 의료진이 4백40여명에게 진료혜택을 주었고, 이 일을 위해 한나 여전도회 1, 2, 3, 4, 6, 10 지회에서 90만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제 3차 성례식 거행

85년도 제3차 성례식이 지난 6월20~23일 본교회당에서 거행되었다.

6월20~21일엔 문답, 21일 오후7시엔 세례식이 있었으며,

23일 주일엔 4 부예배시 성찬식도 가졌다.

구역공과 새로 집필 구역권찰회서

구역권찰회는 구역공과를 새로 집필하기로 했다.

그동안 김장근 목사가 집필 하던 구역공과는 6교구 담당 김영구목사가 김창인목사의 설교내용을 중심으로 구역예배에 알맞게 편집할 계획이다.

한편 동 구역공과는 구역일꾼들만 받아 볼수 있도록 발행부수를 한정했다.

손경수 안수집사 청년협의회 회장피선

제직회 서기인 손경수 안수집사가 지난 6월29일 한국보수교단 기독교장년 협의회 12대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동 청년단체는 한국내의 16개 보수교단 청년연합회 회원 70만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도와 교육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전도단체이다.

여름봉사활동 대학 청년부 회원들

대학부및 청년부 회원, 그리고 주교교사들이 여름봉사 활동을 가져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대학부 회원들은 지난 8월 12~16일 경기도 화성군 수하리 소재 수하교회당에서, 9명이 윤태곤 목사 지도아래 봉사활동을 가졌고, N.M.C는 강원도 강릉시 일원의 병원, 교도소 방문 노방전도활동을 8월 5~9일까지 가졌다.

19명의 회원의 참석한 동 여름봉사단의 인솔자는 윤태곤 목사였다.

또 청년부 회원 7명은 충북 제원군 금성면 소재 금성교회당 (문창길목사 시무)에서 하영자 전도사 인솔아래 여름학교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그의 주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강원도 평창소재 미산교회당 (원인식 전도사 시무)에서 성경학교 인도와 인근 주민 전도활동에 힘을 쏟았다. 동 여름봉사를 위해 경비일체를 각 구역에서 헌금하여 지원했다.

70인 전도요원 훈련 9월 5일부터 8주간

제6기 70인 전도요원 훈련 교육이 오는 9월 5일(목) 오후2시 선교관 304호실에서 개강된다.

수강기간은 8주간(9.5~10.24)이며, 본 교회 남녀 성도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기도와 묵상시간



토막소식

★한나·에스더 여전도회 연합회는 각 교구 목회실에 스탠드 선풍기 1 대씩을 전달했다.

★전도위원회는 강남구 전도의 일환책으로 각 일간 신문(동아, 중앙, 한국)에 전도지를 삽입하여 배포하고 있다.

동 비용은 한나 여전도회 연합회와 제1 남전도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새가정부는 5월19일 “산전 산후의 건강관리”란 제목의 특강을 강신명박사로부터 들었다.

★주교 교사 헌신예배를 지난 5월26일 오후 7시30분 본당에서 드렸다.

이날 신성종목사가 “청년의 때”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교육위원회는 제24기 교사양성부 학생을 모집한다.

세례교인으로서 주일학교 봉사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9월1일부터 11월24일까지이다.

★여전도회 헌신예배를 지난 6월16일 오후 7시30분 본당에서 드렸다.

이날 신성종목사가 “한 사람을 찾습니다”란 제목으로 설교

했으며, 여전도회 회원들이 찬양을 맡았다.

★구역 일꾼 교육을 지난 6월28일 오전 10시30분~오후 1시30분까지 본당에서 실시했다. 동 교육엔 지역장, 부지역장, 구역장, 권찰등이 참석했다.

★교사양성부 제22기 수료식이 지난 6월30일 오전 11시50분 교육관 301호실에서 거행되었다.

★교회는 맥추감사절 예배를 지난 7월21일 주일에 4부에 걸쳐 드리고 저녁예배시에는

영아부 주최의 맥추감사 찬양예배를 드렸다.

★북한선교원 제5차 전도대하기훈련이 지난 7월22-27일까지 강원도 정선 훈련원에서 있었다.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북한선교원 울릉도 집회를 지난 7월29~8월1일까지 인도하였다.

★8·15해방 40주년 구국성회가 북한선교훈련원(남양주군 별내면 덕송리)에서 지난 8월12~17일 개최되었다.

★전 본교회 성가대 지휘자였던 강신의강도사가 지난 8월3일 일시 귀국하여 본교회에 참석하고 14일 출국했다.

★부교역자 장정일목사와, 기조실의 정관호목사가 본 교회 를 떠났다.



▲여전도회 수련회 기간중 성가경연대회장면 (우측은 제8지회 차지)

교인현황 (1985. 7. 30현재)

성별	신금	세례	유세	입교	학습	원입	교인총수
남		2,559	554	263	358	1,350	5,084
여		3,875	474	277	516	1,740	6,882
계		6,434	1,028	540	874	3,090	11,966

새 교 우

30

31

별 세

결 혼

△최성계군(김정옥집사 아들)과 이선순양 5월 1일 12시30분 △박찬왕군(인현구역)과 김정희양(필동구역 윤순탄권사딸) 5월 4일 오후 1시 △김성수군(김원태 김영순집사 아들)과 전영희양 5월 4일 오후 2시 △이유삼군(송정배집사 아들)과 안미숙양 5월 4일 12시 △박수만군(박진환집사 아들)과 이정화양 5월 4일 오후 4시 △강병두군(아현구역)과 김기자양 5월 7일 오후 2시 △이경충군(유은지씨 아들)과 오미숙양(오인근집사 딸) 5월 11일 12시 △박병길군과 한정순양(유치부교사) 5월 18일 오후 3시 △전성원군(신정구역)과 이용숙양(아현구역) 5월 18일 오후 3시 △최동현군과 신승희양(2부찬양대원 이원화집사딸) 5월 18일 오후 3시 △승명달군(박경옥집사 아들)과 박은미양 5월 18일 오후 3시 30분 △황영한군(응암구역 황명현씨아들) 5월 18일 12시 △장성환군과 조필형양(조계록씨 김혜옥집사 딸) 5월 24일 오후 1시 △조종만군(윤재춘권사 아들)과 채명혜양(초등부교사) 5월 25일 오후 2시 △김영길군(김상득 임근예집사 아들)과 이희순양(자양구역) 5월 25일 12시 △박승화군과 홍희숙양(유치부교사) 5월 25일 12시30분 △배경웅군(배일도씨 최복선집사 아들)과 박미경양 5월 25일 오후 3시 △유일군(신선남권사 손자)와 이은주양 5월 25일 오후 2시 △기영길군(기운구씨 우문희권사 아들)과 이은혜양 5월 25일 오후 2시 △정영탁군(신당구역)과 정은순양(남가좌구역) 5월 27일 오후 1시 △김재훈군(부평구역)과 김복미양(면목3구역, 김천임권활딸) 5월 29일 12시 △최영춘군과 장병순양(장병기장도사 동생) 6월 6일 오후 2시 △유승식군(유득한씨 교회주권사 아들)과 최서연양 6월 7일 12시 △김희준군(김달현씨 김순권사 아들)과 한주연양(논현1구역) 6월 8일 오후 1시 △최진영군(최명환집사 양승희집사 아들)과 이해경양 6월 8일 오후 1시 △이대영군(이영세장로 이인도 권사 아들)과 김학임양 6월 12일 오후 2시 △이병립군(박의범권사 아들)과 안문숙양 6월 15일 오후 2시 △우희준군과 김은미양(김남조 김일순집사 딸) 6월 15일 2시 △최경동군(금호구역)과 임유미양(박인해집사딸) 6월 18일 오후 1시 △강태주군(면목구역)과 김지니양(하왕9구역 김재형씨딸) 6월 29일 12시 △김희자양(구수희집사 딸) 6월 29일 오후 1시 △김광식군(성내구역, 대학부교사)과 김숙영양 7월 6일 오후 3시 △김환기군(지숙원권사 아들)과 유은영양 7월 10일 12시 △한덕구군(한종택 김군자집사 아들)과 김영혜양 7월 17일 12시 △문영배군(문현순씨 배옥인권사 아들)과 김현주양 8월 9일 오후 7시30분 △추경호군(마포구역)과 김순덕양(교문리구역) 8월 16일 오후 1시 △문명기군(잠사1구역) 문명숙 권사 동생과 조민행양 8월 17일 오후 2시

△공옥임씨(논현 박양수씨 모친) 4월 21일 별세 △정연화권사(명륜2구역) 4월 30일 별세 △한일섭씨(서초3구역) 5월 1일 별세 △안경현권사(김종수집사 부인) 5월 6일 별세 △이남수씨(홍익2구역) 5월 4일 별세 △김용환씨(중곡구역 김천재장로 장인, 김은희집사 부친) 5월 17일 별세 △박애미씨(삼산3구역 이정희권사 모친) 5월 14일 별세 △김분동씨(신당구역 박철구집사 모친) 5월 21일 별세 △도다리성도(벽제구역) 5월 27일 별세 △정득남성도(화곡4구역 정양례권사4촌) 28일 별세 △김종렬성도(논현10구역) 29일 별세 △원계순집사(손동운장로 장모 홍동작집사 모친) 6월 6일 별세 △김한기씨(월곡구역 강계순권찰 부군) 6월 13일 별세 △서준호씨(장미1구역 최재희권찰 부군) 13일 별세 △박승철씨(강릉2-2구역) 6월 24일 별세 △이정순씨(필동2-1구역) 25일 별세 △장선옥씨(연희1구역 홍성봉씨 부인) 25일 별세 △이우관씨(김순초권사 부군, 김광신장로 장인 이인영, 이인선, 이인광, 이인수, 이인향집사 부친) 28일 별세 △김희원씨(최천금권사 부군) 7월 4일 별세 △서의금집사(인천6구역) 7월 9일 별세 △조용환씨 모친(인천7구역 본교회직원) 10일 별세 △이철우씨(이옥연집사 부군) 7월 24일 별세 26일 장례 △장갑덕집사(방배2구역) 1일 별세 △나군락씨(이두란전도사 모친) 8월 1일 별세 △장순동씨(충현23구역) 8월 4일 별세 △정순숙씨(봉천8구역 나예석권찰 모친) 4일 별세

처음나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신자부는

- 처음 믿으시는 분(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원하시는 분)을 위하여 아주 유익하고도 꼭 필요한 기본적인 구원의 도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 부득이한 시간 사정으로 새신자부에 참석치 못하는 분은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교육시간은 매주일 3부(10시30분) 예배후(11시50분)에 본당 103호실에서 6개월 간격으로 공부합니다.
- 이 교육과정을 마치신 분은 학습을 받게 됩니다.
- 저희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정성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그럼 다음 주일에 새 신자부에서 만나뵙게 될 것을 바랍니다.

충현교회 새신자부



저는 지방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입니다. 농촌목회에 도움이 되는 「월간충현」을 보내 주시면 소신껏 일하겠습니다.

김록겸목사 (전북 정주시 시기3동 504 전주순복음교회)

저는 산간벽지에서 작은 제단을 담임하여 부족한 힘대로 최선을 다하여 제단을 섬기는 목사 정동식입니다.

산골이지만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설교를 은혜롭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월간충현」을 보내 주십시오.
정동식목사 (함양군 수동면 상백리 799번지)

해상선교전락을 마치고 돌아온 본인은 충현교회에서 발행된 「월간충현」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황주철 (경남 충무시 인평 1동110)

「월간충현」을 통해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구독을 원합니다.

노점문 (경남 진주시 하대동576-2 소망교회내)

귀 교회에서 발간하는「월간충현」을 구독하고자 하오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병철전도사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표리162 화양교회내)

「월간충현」을 매월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상대목사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317 의령교회내)

귀 교회가 발행하는「월간충현」이란 책자를 신학교 기숙사에서 보고 그 내용이 알차고 신앙생활과 교양면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신청을 합니다.

배용문전도사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하리687 둔마교회내)

일찌기 충현교회에서 발행되는「월간충현」을 받아 보았으나 중간에 몇년 중단되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므로 다시 신청합니다.

이경범목사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성사리507 원당 신일교회내)

저는 지금 조국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군인입니다. 이곳은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매월 나오는 「월간충현」지로 신앙생활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허영철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 4리)

「월간충현」을 통하여 신앙에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손갑성 (인천시 중구 함동7가 91-2 연안APT (5동505호))

「월간충현」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절차를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대우 (대구시 북구 복현동 시영 APT 16-103)

「월간충현」으로 새롭게 새롭게 신앙의 눈을뜨고 무지에 가까웠던 저의 신앙에도 이제 알파한 조짐이 보이려나 봅니다.

이창규 (경남 충무시 문화동331번지)

하나님의 은혜가「월간충현」지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계속 충현지를 보내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국현 (부산시 남구 용호4동79-15)

충현교회에서 나오는 「월간충현」이란 책자를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농촌교회에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병호 (경남 밀양군 산외면 남기리 남기리교회)

성은중 충현교회 부흥발전을 비오며 「월간충현」 담당하신 분의 축복을 빕니다. 어려운 저희교회에 「월간충현」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종남 (합평군 신평면 삼덕리 신평교회)

「월간충현」을 통하여 저희 목회 활동과 교회행정에 큰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곽삼찬·김금용목사·윤용재장로 (마산시 오동동104-6 마산동광교회)

매월 보내주시는 월간충현에서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으며 산간벽지에서 오직「월간충현」에 의지해서 진리의 말씀과 교회소식, 교양등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김봉한 (경북 울진군 서면 광희국민학교)

성은중 귀교회 부흥과 평강을 기원합니다.「월간충현」을 보내 주십시오.

김영달 (경북 경산군 남천면 금곡동 453 금곡교회)

매월 배달부 아저씨가 월간충현을 들고올때면 그렇게 반갑고 기쁠수가 없습니다. 한자 한자 읽을때마다 글을 쓰신 분들의 정성과 신앙을 느낄수가 있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원성덕강도사 (인천직할시 북구 작전동808-1 9통8반 남이빌라1동206호)

농촌교회를 위해서 「월간충현」을 보내주셔서 목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두인목사 (경남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660-55 중남교회)

□ 당회

8월2일 / 7월정기당회

8월30일 / 8월저기당회

□ 제직회

7월7일 / 7월정기 제직회

8월4일 / 8월정기 제직회

□ 기획조정실

8월30일 / 7.8월호 월간 총현 발행

□ 구역권찰회

8월4일 / 모범구역, 구역원 표창

□ 예배위원회

7월21일 / 맥추감사주일

□ 전도위원회

7월9~11일 / 에스더 여전도회 수양회

□ 북한선교위원회

7월22~26 / 하기훈련

8월5~10일 / 사관생도 하기 훈련

□ 교육위원회

7월8일~8월17일 / 12부 주교

계절학교(여름)

□ 사무국

8월17일 / 행정감사

□ 장학회

8월25일 / 장학금 수여

편집 후기

★ 몹씨 더운 여름이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방울이 떨어지니 보통 더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더위속에서 주교 교사들은 더욱 땀을 흘렸으니 그 수고야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 주실 것이다.

★ 이번호는 기획특집 “여름교육 훈련”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필진도 젊은 교역자에게 의뢰했고 신선한 욕고를 게재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금년은 광복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특별논단으로 한국교회사의 권위자인 총신대학 홍치모교수를 통하여 “8.15 광복 40주년과 한국 교회의 장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 장로 가정을 탐방하는 기회를 얻게되었다. 인터뷰 중 은혜가 넘침은 왜 일인가? 귀한 장로 가족을 소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 건축헌금에 대하여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눈물겹도록 열성적이다.

가정에서의 근면 절약은 말할것도 없고, 어느 권사님과 여집사는 작정한 건축헌금 약속이행을 위해 자녀 몰래 심방간다고 말해놓고, 가정부 노릇을 하며, 거기서 얻은 수익금으로 건축헌금을 한다는 소식도 있다.

이렇게 귀중히 바쳐진 건축헌금이 옳게 쓰여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될 것으로 확신해 본다.

월간총현의 목적

1. 개혁 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월간 총현

1985년 7·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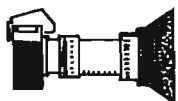
제13권 6호(통권130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간
1985년 8월 24일	인발	행
1985년 8월 30일	발행	인
발행인	김창익	인주
편집인	최석성	행
주간	이성근	간
홍보출판부장	김광정	원
편집위원	장조영	원
	조영선	원
	조경	원

발행처 /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역삼동665-1

전화 / 562-4181 ~ 5



사진으로 보는 계절학교 이모저모



▲ 여선도회 에스더 여름수련회 모습



▲ 유년부 계절학교의 순유회시간



▲ 유치부 어린이들의 즐거운 게임시간



▲ 중등부 계절학교 성가경연대회



▲ 산상기도회 및 성경공부시간



▲ 소년부가 주최한 사진전시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 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 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 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중에서

